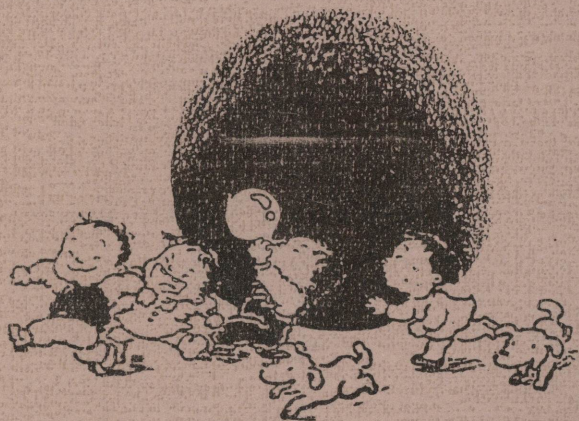


탁아분과 꼬마사랑

미아동 한자리에 마련된 '동근나라'라는 탁아소에서 탁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터에 나간 어머니와 아버지들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나누어드리고, 아이들에게는 바른 사회를 배우게 하여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일구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지금 저희들과 우리 아이들에게는 새내기 여러분들의 관심과 활동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탁아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뜨거운 열정을 갖고 참여하실 수 있는 여학우, 남학우라면 모두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지금 곧 학생회관 2층 총여학생회로 오십시오.



. . . .

구인광고

- ♣ 총여학생회 기관지인 「함성」과 함께 올 한해를 일구어보고자 하시는 학우 여러분! 편집위원회에서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 제 10대 총여학생회 일꾼을 모집합니다!! 마음이 넉넉하고 복약의 자랑찬 여학우임을 자부하시는 학우라면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새 내 기 새 문 배 우 터

새로쓰는 동화 . . 백설공주의 고된

옛날에 백설공주라고 불리우는 그림같이 예쁘고 착한 소녀가 양친의 성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머리는 흑단처럼 까맣고 뺨은 눈처럼 희고, 입술은 핏빛처럼 빨강습니다. 그렇지만 공주는 궁궐의 모든 부귀영화가 백성들의 가난과 고된 노동을 통해 얻어진다는 것을 알고부터는 마음속깊이 슬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말을 타고 숲속을 가다가 거친 수염을 기른 청년을 만났습니다. 공주는 청년에게 말을 걸어 세상살이에 대해 알아보려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청년이 바로 자기의 슬픔을 해결하는 일을 하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즉도록 일하고 시달리기만 하는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은 반란군에 그가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입니다. 헤어질 때 그는 공주에게 조그맣고 빨간 책 하나를 선물하면서 궁안의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백설공주는 일곱 밤 동안 이 책을 읽어서 거의 외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주는 그 청년이 하고 있는 일이 옳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숲속에 갈 때 공주는 물레 식량과 철판, 그리고 몇개의 무기를 가지고 갔습니다. 공주가 일곱 언덕을 넘어 반란군들의 진영에 도착하자 그들은 열광적으로 환영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유용한 물건을 가져왔기 때문이기도 하겠지요. 아름다운 공주가 반란군에 가세했다는 소식은 산불처럼 퍼져 나가서 자유해방군에 더 많은 추종자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번 왕의 군대의 교활한 음모를 물리친 반란군들은 드디어 성을 함락시키고 왕정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는 백설공주가 가담한 혁명정부를 수립하였습니다. 사악한 왕비는 감옥에서 평생동안 뜨게질하는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백성들과 민중에게 행한 잘못을 보상하기 위하여 옷을 만드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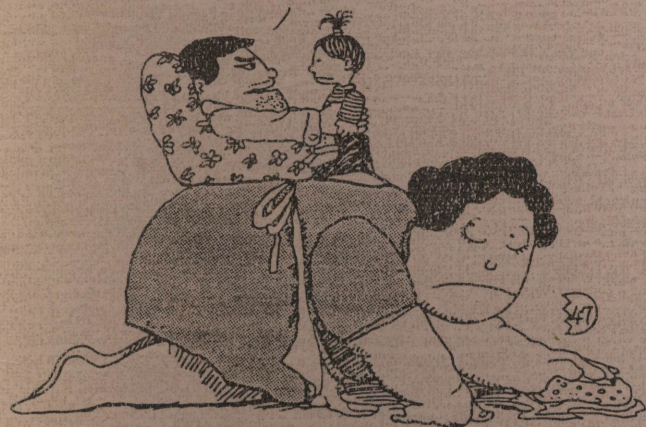
혁명정부에서 백설공주는 여성해방을 위하여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백설공주를 좋아하고 존경하였습니다. 아마 죽지 않았다면 지금도 열심히 그런 정의로운 일을 하면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알림판

창조하는 여성·변화의 발걸음
제 10대 총여학생회는 학생회관 2층205호 입니다.
또 다양한 여성학 도서를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창조하는 여성·변화의 발걸음

남자와 여자는 하나도
다를것 없다. 아야



제 10대 총여학생회

“안녕하십니까”

가슴 설레이게 다가오는 새내기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창조하는 여성들의 공간’ 총여학생회는
인간의 자유와 해방을
대학내에서 실현하는 공간입니다.
당차고 진실된 기백으로
서로의 억압을 목인하는, 그 강요당한
침묵부터 깨뜨려 나가고자
여학우들의 의견을 모아내고
남학우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겠습니다.

총여학생회장 정혜진 <중문 4>
부여학생회장 송은정 <영문(야) 3>

창 · 조 · 하 · 는 · 여 · 성 · 변 · 화 · 의 · 발 · 걸 · 음

♣ 학술부

여성문제 강연회나 교양강좌 등 학술적인 면의 사업과 총여학생회의 소식지 및 자료집 그리고 신문 '복악여성'을 발행합니다.

♣ 소모임부

여학생 소모임들의 한단계 높은 발전적인 위상과 모델 제시를 통해 고립된 모습을 지양하고, 연대의 장을 만들어 나갑니다.

♣ 문화복지 선전부

여학생 휴게실의 관리와 여학생 복지, 권익보호, 대자보 기획작업을 통한 여성문제 의식전환 등을 담당합니다.

✦ 편집위원회

총여학생회 기관지 『함성』을 제작하는 단위로 총여학생회의 사업기조를 심도있게 연구하여 내용으로 담아내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해오름식 ♣

총여학생회가 올 한해 사업의 첫발을 내딛는 출발신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진정한 인간으로 서기위한 94년의 첫 발걸음, 비록 작지만 우리의 굴레를 한꺼풀 벗기우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소모임 연석회의

을 한해 사업중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각 단대나 과별로 존재하는 여학우 소모임들과 연계해 나가면서, 함께 총여의 사업을 고민할 것입니다. 복약의 당당한 주인으로 2천의 여학우들이 우뚝 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영화제 ♣

정기적으로 소규모 영화제를 개최할 것입니다.
먼저는 '여학생 휴게실'이라는 공간을 이용해 비디오를 상영하고,
더 나아가 볼만한 영화를 선정해 전 복악 학우들에게 선을 보일 것입니다.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으며,
그 안에서 우리의 자리를 어떻게 매김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그날 이후

